

머 리 말

여기에 엮어 놓은 글은 기독교 사회에서 봉직하는 동안, 특히 “基督教思想”誌 주간으로 있는 동안에 여기 저기의 간행물에 발표했던 나의 所見들이다. 엄밀히 말해서 지난 1961년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응답하며 증언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로 취임한지 벌써 7년이 되는 이 시각에도 이러한 문제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아니, 이 문제성은 지난 몇 해 동안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살얼음 위로 걸어가듯 아슬아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실존적인 不安, 우리의 生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도전이 무엇이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선교의 과제라고 믿는다.

兩極속에서 調和를 찾는다는 일은 꽤 힘든 일이다. 是非를 가리기에 앞서 무엇이 창조적이며, 무엇이 우리의 人間性을 깨뜨리는 것인가를 分別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는다. 肯定과 否定 저 쪽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면서도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 信仰生活의 참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이 글을 엮어서 교정을 애써 준 아내 金玉實과 출판에 동분서주한 宋明來 양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1974. 11.